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 보고

효율적인 영락공원 관리운영 도모를 위하여 실시한 2015년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2015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선진장사시설 견학계획 보고(2015.03.05.)와 관련임 -

I. 견학 현황

견학 개요

- 기 간 : 2015. 3. 31.(화) ~ 4. 7.(화) 《6박 8일》
- 대상국가 : 영국, 프랑스
- 견학인원 : 16명(주민감시단 13, 공단 3)
- 견학내용 : 봉안당·묘지 등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전반

견학 동기 및 배경

- 영락공원 건립·운영과 관련, 지역주민의 선진장사시설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운영 필요성 제고
- 방문국의 장사시설 관련 자료를 통해 세계 장사문화 흐름과 선진장사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에 일조
- 2004년부터 지속적인 해외 장사문화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의 선진장사문화 노하우 축적 및 발전방향 제시

주요 내용

- 국외 국가의 봉안당·묘지 등 관리 운영실태 견학
 - 장사시설 방문 : 영국, 프랑스 도심 장사시설
- 장사문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대처 방안 자료 수집 등
 - 자연장·수목장 등 선진장법 도입 배경 및 운영 방법 등
- 기타 장사시설 관리·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 등

□ 견학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대상국가	· 영국, 프랑스		
기 간	· 2015. 3. 31. ~ 4. 7.(6박 8일)		
인 원	· 16명(공단 3명, 주민감시단 13명)		
방 문 일 정	1일 3/31 (화)	· 김해공항(10:00) ⇒ 동경(09:50) ⇒ 런던(15:25) - 웨스터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시계탑 빅벤	
	2일 4/1 (수)	· 런던 ⇒ 버스(전용차량) ⇒ 스톤헨지 ⇒ 솔리베리 대성당 ⇒ 런던	
	3일 4/2 (목)	· 런던 ⇒ 옥스포드 대학 ⇒ 윈저성 ⇒ 런던	
	4일 4/3 (금)	· 런던(공원 묘지) ⇒ 대영박물관 ⇒ 타워 브릿지 ⇒ 세인트판크로 ⇒ 런던 ⇒ 파리	★장사시설방문
	5일 4/4 (토)	· 파리 ⇒ 루브로 박물관 ⇒ 파리(공원 묘지) ⇒ 몽쥬약국 ⇒ 트로카데로	★장사시설방문
	6일 4/5 (일)	· 파리 - 에펠탑, 세느강, 샹제리제 거리, 나폴레옹 개선문	
	7일 4/6 (월)	· 베르사이유 궁전 ⇒ 라데팡스 ⇒ 몽마르트 언덕 ⇒ 성심성당 ⇒ 파리공항 출발(21:55)	
	8일 4/7 (화)	· 동경 도착(16:30) ⇒ 동경 출발(18:20) ⇒ 부산 도착(20:35)	

II. 견학 내용

영국의 봉안시설 관리운영 실태 견학

- 봉안시설 : 2개소
 - Ashford 부근 묘지, 봉안당
 - Oxford 부근 묘지, 봉안당

프랑스의 봉안시설 관리운영 실태 견학

- 봉안시설 : 1개소
 - Faches 묘지 및 봉안당(1820년 준공)

유럽의 생활상 등 다양한 문화탐방

- 영국 문화탐방 : 웨스트민스트 사원, 국회의사당, 시계탑 빅벤, 스톤헨지, Oxford 대학, 윈저성, 바스, 대영박물관, 타워브릿지 등
- 프랑스 문화탐방 :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세느강, 샹젤리제 거리, 나폴레옹 개선문, 라데팡스, 베르사이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 등

Ⅲ. 국외 장사제도

□ 영 국

1. 희귀동물 보호구역으로 인기 끄는 영국의 공원묘지

현재는 런던 중앙에서 반경 9마일(14.4km)안에 모두 1백 곳의 공·사설묘지 및 종교묘지가 형성되어 화장률이 70%인 런던시민의 영면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초로 수도의 서북부에서 생긴 근대식 묘지인 켄살 그린은 0.28평방km의 크기에 6만 4천 8백개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묘지 구내에는 85종의 다양한 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나비와 토끼, 박쥐같은 동물도 여기저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런던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런던시는 이 묘지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새나 다람쥐를 해치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알을 품는 새가 놀라지 않도록 정숙을 당부하고 있다.

2. 영국의 화장률

영국 현재 화장률은 70%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신분 지위 재산과 관계없이 사설 공동묘지나 공용묘지 1평 정도의 평분을 조성하고 자연적으로 된 묘비를 설치, 1개의 본 묘에 4구까지 합장한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화장을 권장하며, 그밖에도 묘지 나눠 쓰기, 묘지 재활용 등의 시민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3. 장례제도

교회의 종교적 권위 저하 등 변화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대감이나 전통적 관습까지 과급되어 장례관습에도 예외 없는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현저하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화장의 급증이였다.

화장이 전쟁 중에도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으나 1940년도에 3.9%에 머물던 화장률이 1950년에 15.6%, 1960년대 34.7%, 1980년도에는 64.48%로 가속도적인 보급률을 보였다.

더구나 유체는 영혼이 빠진 한낱 물체에 불과하다는 종교적 해석, 환경보호나 생활공간의 확보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은 국토를 광대한 묘지가 점유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화장은 당연한 귀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연하게 옛날의 전통 관습만을 존중, 고집하고 화장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나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반대의 이유인 즉, 신의 재림에 있어서는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하며, 육체의 부패는 자연의 섭리라는 점, 급격한 육체의 소멸에는 참을 수 없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각 교회에서는 대부분 화장에 반대하지도 않는가 하면 권고하지도 않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남자는 검정, 여자는 흰색으로 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한 유체 위에는 성경이 놓여진다. 죽은 즉시 성직자를 초빙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교회로 옮긴 후에 장의를 치른다.

성직자는 장례식에는 앞서서 묘지를 성화하고 관위에 흙을 뿌리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기도한다.

성인 신자들의 일요 예배 출석자는 전체의 약15% 정도로 집계되어 있을 뿐이라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종교단체가 장례 관습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치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운영의 장의사에서 장례를 주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영국 땅에서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거

쳐야 할 두 가지의 관문이 있다고들 한다.

즉 거주지내의 호적등록소와 장의사라는 것이다.

전자는 1853년에 제정된 “출생 및 사망 등록소”이며, 장례 장소는 보통 묘지나 화장장 또는 예배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거주하던 자택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나 있다고 한다.

장의사에서는 사망으로부터 매·화장,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장의업무를 유족에 대신하여 집행한다.

“유태인 장제상조 조합”을 제외한 유족들은 가까운 장의사를 이용하고 있다.

약 2천 5백여개 정도가 영국 장의업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장의일시, 장소, 규모, 용구, 관의 선정에서부터 유체의 보존, 문구, 사제, 영구차, 매·화장의 수배, 사망보험의 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프랑스

1. 장묘문화

사망했을 경우 담당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관청에 제출 매장허가증을 교부받는데 24시간 안에는 매·화장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 장의사는 개인 사업으로 상가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교회나 묘지에 있는 영안실에서 장례의식을 치른다.

나폴레옹이 통치할 당시에는 장의가 교회의 독점물이었으나 1904년 정부에서 그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 이외의 것은 모두 일반 장의사에서 전담처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행 중인 유체의 정형보존술도 저명인사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수속도 복잡하며, 장의도 예산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되며, 따라서 장의 용구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상가에서의 제단에는 관대와 촛대가 설비되고 주변을 검은 커튼으로 치장하는데 관에는 고인이 성인일 경우 검은색,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보를 씌우고 고인의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들을 관위에 얹어 놓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공공묘지에 매장하여야 하며, 2시간이 경과하든가 사망 장소로부터 200km 이상의 장소에 매장할 경우에는 관의 내부에 밀폐용 금속 핀을 붙여서 경찰관이 봉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묘지는 모두 공영으로서 통상 5년간의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장 35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 후 5년이 경과 후 갱신치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은 합장하고 있다.

2. 박물관 대접받는 공원묘지

세계에서 맨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는 파리 제20구 초입에 있는 페르라세즈 묘지로 1804년부터 파리시민의 유택지로 애용되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야산 0.42평방km에 영국식 정원개념을 살려 조성한 이 묘지는 세계 최고의 근대식 묘지답게 파리시민이 가장 많이 묻힌 프랑스의 대표적 집단묘지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그 사이사이에 싹틔줄처럼 난 도로 사이에 97개의 크고 작은 분묘단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총 10여만 개의 분양묘소에 50만명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무연고 묘의 재사용으로 지금도 제20구에 거주하는 파리장의 유택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묘지인 만큼 쇼팽, 발자크에서부터 수년전 숨진 세계적 샹송가수 이브몽땅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묘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묘소가 남들과 달리 호화롭다거나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은 명당일 법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저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놓고 간 꽃송이가 즐비한 것이 보통시민의 유택과 다를 뿐이다.

묘지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망자나 그 유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묘역을 차지할 수도 호화롭게 장식을 할 수도 없다.

「고엽」이라는 노래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영화배우로서 이름을 날린 이브몽땅은 한때 프랑스의 대통령 감으로 지목될 만큼 사회적 명예와 부를 누렸으나 그의 묘소는 주변의 여느 것과 다를 바 없이 검소하기만 하다.

가로 0.8m에 세로1.6m 크기로 반 평도 채 안되는 묘역에 높이 30cm 가량의 화강암 평석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묘석위에는 항상 손바닥만한 화분들이 놓여 장미, 백합, 진달래 같은 꽃들이 색깔이 피어 있고 “시간은 흐르나 추억은 남는다”라는 추모글이 묘석에 적혀 있어 불멸의 스타를 기리고 있다.

페르라세즈 묘지는 프랑스 건축가 부로니아르가 최초의 정원식 묘지로 설계한 사실로도 유명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에 선보인 공원식 묘지의 효시가 되었다.

공원식 묘지답게 박물관으로 지정돼 문화재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되어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아래 벤치에 산책나온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는 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 시내에는 총면적이 0.92평방km인 시립묘지가 14곳에 분산 설치돼 파리 시민들의 유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묘지는 대다수가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한부로 이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파리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6천명 가량으로 이 중 2천명(13%)이 화장되고 나머지는 매장되지만 묘지 난을 찾기 힘들다. 매장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묘 형태로 합장되는 데다 1기당 분묘 면적도 반평 이하로 넓지 않기 때문이다.

IV. 견학 결과

□ 유럽의 장사시설 견학 시사점

- 유럽의 정치 문화는 카톨릭의 영향이 깊게 배어있어 장사시설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묘지나 화장장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도심에는 중앙공원 형식으로 시내 중심에 묘지를 만들고, 묘지위를 예쁜 꽃밭으로 조성해 자주 방문하고 가꾸고 있다.
- 우리와의 문화 차이등이 있으나, 우리의 장사문화도 선진화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다.

□ 우리 장사문화의 발전방향

- 장사시설의 경우 삭막한 주변 분위기를 부드럽고 친밀감 있는 각종 문화공간 및 스포츠시설을 주변에 조성하여 기피시설에서의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납골당의 공간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목장의 정립된 표준을 만들고, 공묘의 재사용을 불허하고 그 묘원을 공원화하는 등 재단장이 필요함.
- 시민편의 제공과 공원조성 등 장점에 대한 시책은 장기과제로 점차 개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붙임 견학 내용 현장 사진 1부. 끝.

영국 견학 현장 사진

		
<p>새벽에 배웅 나온 구행진 단장</p>	<p>원저성 정원</p>	<p>영국의 2층버스</p>
		
<p>공사중 안전휀스</p>	<p>“웃다 죽었다”는 연극홍보</p>	<p>영국의 타워 브릿지</p>
		
<p>국회의사당</p>	<p>시내 공원</p>	<p>대영박물관내 한국관</p>
		
<p>고인이름으로 의자기증</p>	<p>Oxford부근 묘지</p>	<p>표지위 꽃밭 조성</p>

프랑스 견학 현장 사진

		
<p>신시가지 라데팡스</p>	<p>파리 에펠탑</p>	<p>암환자를 위한 폐병 모으기</p>
		
<p>공공자전거 이용중인 시민</p>	<p>프랑스 공공자전거</p>	<p>생활화된 공공자전거</p>
		
<p>파리 조경</p>	<p>시내 공원</p>	<p>몽마르트 언덕</p>
		
<p>Faches묘지 옆 아파트</p>	<p>유명화가 마네의 묘지 (플밭의 식사 작가)</p>	<p>Faches묘지 설명경청</p>